

科學의 眞正한 方法論(六)

裴相河君의 理論을 批判함

柳春海

칸트의 先驗的 論理學의 諸 範疇는 以上보다는 조금 進歩되였다. 그것은 多少間 辨證法的 矛盾을 깨달았다. 그러나 恒常 不安한 狀態에 잇었다. 칸트는 先驗的 分析論에서 보아도 諸 範疇는 모다 悟性의 先驗性 形式에 不過하다. 이 모-든 範疇를 現實界에서 끌어내 가지고 그것을 永久히 意識 속에 移入 埋葬식한다. 그럼으로 先驗的 性質은 그의 形式論을 極端으로 高調식한다. 다음에 헤-겔의 範疇는 客觀的이지만 論理的으로 그것 自身이 發展하는 한 本體 絶對精神의 發展階級이라 하는 觀念論的 意味에 不過하다.

最後에 『맑스主義의 唯物辨證法의 範疇는 그것이 그리케 잇서야만 될 그것, 卽 物質的 歷史的 生滅的의 諸 現象으로의 抽象이다. -(이·롭폴 唯物辨證法의 範疇는 實體가 아니고 다만 概念에 不過한 故로 그 意味에서 主觀的이다. 그것은 外界 現象의 特定物關係 及 思想이 그것에 對應한다는 意味에서 客觀的이다. 그런 故로 唯物辨證法은 現實에 對應하는 論理學이다. 그 概念, 概念의 配列, 結合, 媒介 及 順位들 그것이 客觀的으로 存在한 對象이 對象의 配列, 結合, 媒介 及 順位에 反映하게 配置하는 論理學的 方法이다.

이것이 科學의 眞正한 方法論이다. 形式主義와 經驗論과 懷疑主義와 이 眞正한 方法論과의 참된 區別과 是否를 君도 잘 알 줄로 맞는다. 그럼으로 君이 여! 所謂 『懷疑하자』가 果然 眞正한 方法論인가?

君이여! 科學者다운 態度로 眞理를 爲하여 現實을 正確하게 把握하기 爲하여 君의 『平生의 宿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終身的 奴隸』가 되지 안키 爲하여 眞正한 方法論으로 目的 意識的으로 體得하기 바란다.

- 一九三〇, 七, 一九 -